

빛을 주는 실로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145번째 이야기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주뻗주뻗 훑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말자.

세상이 바람불고 춥고 어둡다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붉고 깊은 상처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격월로 발행되었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보 '빛을 주는 실로암'은
2019년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발행됩니다.

「빛을 주는 실로암」 2019년 겨울호 (통권145호)
발행일 2020년 1월 31일
이사장 김선태
발행인 김미경
편집인 함요한, 최수린, 이지영
발행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087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은천동 931-7)
TEL. 02.880.0500 FAX 02.887.1120
E-mail silwel@chol.com
Homepage <http://www.silwel.o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lwel2>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silwel.do>
Telnet bbs.silwel.or.kr
Web BBS <http://web.silwel.or.kr>
ARS 02.880.0900
문의 기획홍보팀 02.880.0865
제작 우리미술 02.2275.6960

포커스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식개선 축제
'2019 희망모아 나눔모아' ————— 04

포커스2

관현맹인전통예술단 미주 순회공연
'600 Years, The King's Orchestra' ————— 06

포커스3

재활훈련 20주년 기념, 실로암 기초재활 홈커밍데이 ————— 08

포커스4

서울시와 함께하는 최종증시각발달장애성인
낮활동 지원사업 실시 ————— 10

해피스토리

2019년 10월~12월 사업 현장 ————— 12

개발도상국 장애인지원사업

시각장애인 커피전문점 인도네시아
'카페모아 와따구나점' 오픈 ————— 16

실로암 생활체육교실

희망을 꿈인하다 시각장애인 축구 ————— 18

겨울특집 코너

희망을 내리는 카페모아 ————— 20

인식개선캠페인

시각장애인 당사자 이동 및 접근권 향상을 위한 거리행진 ————— 22

2019 Siloam Awards

한눈으로 보는 2019 실로암 ————— 24

후원보고

2019년 10월~12월 후원자 명단, 후원금 내역 ————— 26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식개선 축제

2019 희망모아 나눔모아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멋진 가을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즐거운 연례행사로 자리 잡힌 2019 희망모아 나눔모아 축제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전화 장애인식개선팀 02-880-0880~4



지난 10월 18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19시까지 관악구 주민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식개선 축제 2019 '희망모아 나눔모아'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에는 ▲시각장애체험 및 스포츠체험 ▲점자책갈피 무료 제작 및 점자팔찌 체험 ▲축각명화 전시 체험(관내 S갤러리) ▲축각교구 제작 체험(입체그림) ▲시각장애인 무료안



마시연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시각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매김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지역주민은 “작년과 올해 두 번째 아이들과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매해 이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동네에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 체험을 통해 이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것 같아요.”라며 “예전에는 시각장애인을 보면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젠 동네 주민 같고 정이 가요.”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요즘에는 돈을



주고 페스티벌에 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뜻 깊은 축제에 참석해서 사람들과 나눔을 실천하는게 더 기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새롭게 시도하는 시각장애인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공연과 시각장애인의 날(10월 15일)인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하는 거리행진이 봉천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영원무역, CJ 프레시웨이 후원으로 등산복과 다양한 먹거리판매가 진행되며, 시각장애인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



모아 봉천점의 음료할인 이벤트가 함께 더해져 풍성한 지역사회 나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희망모아 나눔모아'는 2018년까지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바자회 위주로 진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지역사회 내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공동체 의식을 함께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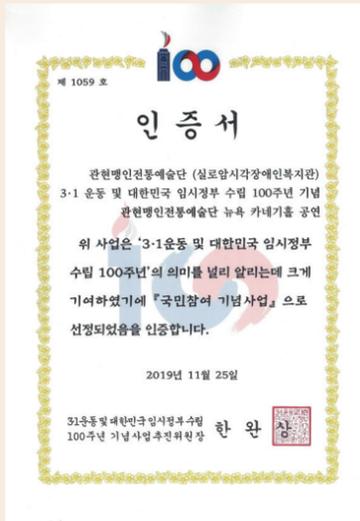
관현맹인전통예술단 미주 순회공연

문의전화 관현맹인전통예술단 02-880-0690~9

지난 가을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뉴욕 및 뉴저지 일대에서 순회공연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뉴욕에서의 공연은 지난 2014년 카네기홀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던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두 번째 공연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떠나 나라와 역사를 지키려 노력하고 희생하신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억하기 위해 기획하였으며, 특히 뉴욕 카네기홀 공연은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단장 최동익, 예술감독 변중혁)은 뉴욕 카네기홀 공연에 앞서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현지 장애인과 고등학생 및 한인 대상으로 순회공연을 펼쳤는데요. △The Korea Society △Visions at Selis Manor △Bergen County Academies △Northern Highlands Regional High School △Bayside High School △Academies at Englewood △Long Island Korean School 등 12회의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연을 관람했던 현지 관객은 “한국의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알게 되었다.”, “공연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정말 감동적인 공연이었다.”라며 공연에 대한 평가를 전했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떠나 나라와 역사를 지키려 노력하고 희생하신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억하고자합니다.

본 순회공연에서는 △신(新)천년만세 △판소리 △대금2중주 △시조 △생활독주 △거문고협주 △타악합주 △민요 등의 우리 전통음악을 다채롭게 선보였고, △A whole new world △Baby Shark 등 현지인들에게도 익숙한 레퍼토리를 준비해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최동익 단장은 “현지인들의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에 놀랐고, 다시 한번 우리 음악을 세계에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과 뿌듯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한국음악을 국내 및 세계에 전하는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감당해 내겠다.”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순회공연은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뉴저지한인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600년 전 조선시대 시각장애인 악사를 궁중악사로 채용했던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반영된 ‘관현맹인 제도’를 계승한 예술단으로 전국에서 국악을 전공한 시각장애인 현 단원들로 한국의 권위 있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각종 상을 수상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OMECOMING DAY



재활훈련 20주년 기념, 실로암 기초재활 홈커밍데이

문의전화 평생교육팀 02-880-0530~4



실로암 기초재활 훈련생은 실로암의 자랑,
실로암의 기쁨, 실로암의 희망입니다.
깊어지는 까만 밤하늘 아래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 20주년을 기념하여
실로암 기초재활 수료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실로암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총 40기수 약 300여명의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재활훈련(▲점자교육 ▲컴퓨터교육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중도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생활을 돕고 향후 진로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데 초석이 되었는데요.

이날 기초재활 홈커밍데이에는 총 76명의 기초재활훈련 수료생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사장에 모인 졸업생들은 이산가족상봉을 하듯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만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수료생은 “중도실명은 나에게 살아갈 의지나, 희망, 미래를 앗아갔다. 세상에 철저히 버려졌고 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초

재활교육을 받으며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훈련생동기들을 만나며, 어두웠던 삶에 희망이 스며들었다.”라며 “또한 실로암 기초재활교육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꿈이 생겼고 뭐든 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다. 실로암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본식에서는 재활훈련 20주년 기념식과 40기 교육생들의 환영 공연, 재활수기 발표 및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본 행사에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기초재활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수료생들을 모실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감회가 새롭다.”라며, “앞으로도 실로암은 중도실명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팀은 장애로 인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시각장애인에게 재활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초재활교육, 정보화교육, 자격증대비과정,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최중증시각발달장애성인 낮활동 지원사업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최중증시각발달장애성인을
대상으로 낮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문의전화 가족지원팀 02-880-0601~5



시각발달장애인은 시각의 손상으로 인해 움직임에 대한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발달장애로 인한 지적 및 언어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고립이 도전적 행동(발달장애인이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거나 해를 가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시각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생활시설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시각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각발달장애 성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실로암은 서울시의 중점사업 일환으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최중증시각발달장애성인에게 낮 시간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용자 개인의 특성에 맞춘 개별화된 개입을 계획하여 지원하며, 최중증시각발달장애성인에게 필요한 ▲도전적 행동 중재 ▲일상생활교육 ▲기초보행교육 ▲동물매개 ▲감각통합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실로암은 최중증시각발달장애성인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우수자원봉사자 감사회 및 보수교육

올 한해 실로암을 위해서 헌신한 우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감사회 및 보수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석해주신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귀한 나눔과 실로암의 자원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효명아카데미더스클럽 송년회

효명장학생 선배들이 함께 모여, 2019년 한해를 돌아보고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행복한 크리스마스

시각장애부모 슬하에 있는 아동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시각장애부모와 아동들은 크리스마스 쿠키와 사탕, 젤리를 이용하여 크리스마스 쿠키집을 직접 만드는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송년회

한 해 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해 수고해주신 활동지원사분들을 모시고 2019년 활동지원사 송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간 사업소개 및 모범적으로 성실히 활동해준 8명의 우수활동지원사를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맛있는 저녁식사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관현맹인전통예술단 국내 공연소식 ▼

관현맹인전통예술단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군포노인복지관, 강남대학교, 효제초등학교 등 36곳에서 6,175명을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등학교학생과 대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관현맹인전통예술단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에게 국악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 장애체험교실&직장내 인식개선교육

포스코인터내셔널, 서울시복지재단, 한국뉴욕주립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등 총 85곳에서 2,780명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서경대학교, 용인바이오그등학교 등 총 32곳에서 3,082명을 대상으로 장애체험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 제3차 야외나들이

지역사회지원센터에서는 시각의 제한으로 평소 외부활동과 문화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재가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복수원운천으로 온천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온천나들이는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 기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의 보탬이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제4차 지역축제탐방 (용인 한국민속촌)

문화체육지원센터에서는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민속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LGU+ 임직원분들과 함께 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관람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조이풀중창단 공연소식

조이풀중창단이 실로암안과병원과 아모그룹의 검단공단 준공 기념식에 초청을 받아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연마다 남성 중창, 여성 중창, 합창 등 다양한 구성과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음악과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 하반기 외국어회화교실 문화수업

하반기에는 원어민영회화교실, 일본어회화교실(주/야간)등 총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흥미로운 주제로 각 나라 고유의 문화를 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음악재활아카데미 발표회 · 수료식

한 해 동안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피아노, 성악, 아카펠라, 색소폰, 보컬, 하모니카, 전통관악 등 다양한 악기를 통해 1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제6회 촉각명화기획전 (EXPRESSIONISM '표현주의')

실로암점시관 S갤러리에서는 20세기 유럽 미술 운동 '표현주의'를 주제로 제6회 촉각명화기획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눈으로 분별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분출되는 솔직한 감정 표현에 집중했던 '표현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직접 만지면서 당대 화가들이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감정을 마음으로 공유하는 시간이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하반기 보조공학기기 대여자 순회점검

정보기기지원팀에서는 이틀간 대구대학교, 우석대학교에 방문하여 보조공학기기 대여자 순회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순회점검을 통해 기기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수리를 진행하여 사용 시 불편한 점을 해결하였으며, 기기 관리법 교육을 통해 기기 사용 시 오작동을 예방함으로써 보조공학기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도서관탐방 (한국영상도서관)

실로암점자도서관에서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상과 관련 자료가 보존된 한국영상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시대별 주목받은 명작들과 변화되는 영화계의 모습을 배우고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MOU 체결

종로구 지역사회 장애·비장애 통합 독서문화 발전 및 정착을 위한 상생 협력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시각장애청소년 직업체험

가족지원팀에서는 시각장애청소년들과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업 체험을 만들어 파티셰가 되어보고 점역사, 안마사, 바리스타 등 다양한 직업을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도란도란 갤러리

학습지원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독서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 및 시각장애학생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도란도란 갤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전시에는 까치호랑이, 벼타작, 절규, 푸른누드 IV, 루마니아풍의 블라우스를 입은 여인 등 총 5점의 촉각명화가 전시되었습니다.



▲ 시각장애부모 역량교육

본 교육은 시각장애 당사자의 자립생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교육과정 가운데 보호자로서 알아야 할 장애관련 최근 이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해를 돕는 시간이었습니다.



▶ 하반기 음악체험프로그램 공연관람 '난타'

음악교육팀에서는 시각장애아동, 청소년들과 '난타' 공연관람을 진행하였습니다. 외교부 관계자 자원봉사자 분들의 도움으로 원활한 공연 관람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로장애인 송년회 ▶

안마센터, 카페모아, 포장조림, LED사업 등의 근로장애인 및 직원 14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우수 근로장애인 시상, 식사, 경품추첨, 장기자랑 등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하반기 직업훈련 수료식

2019년 하반기 직업능력개발훈련 5개공과 (바리스타카페창업훈련 23기, 베이커리창업훈련 14기, 안마지압창업훈련 39기, 장애인권·인식 개선 전문강사양성훈련 4기, 장애인 점역교정사 양성훈련 11기)의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25명의 훈련생이 수료하였으며 5개월 동안 개근한 훈련생 1명에게도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훈련을 통해 총 11명이 자격증을 취득 하였고, 3명의 훈련생은 수료 전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간담회

2019년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30명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수근로자 2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본 사업의 성패에 대한 내용 공유와 근로자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2020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

직업지원팀에서는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중증장애인의 직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지원인제도의 이해 및 장애유형별 지원사례, 체험활동(점자·시각) 등의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제76차 취업자간담회 나들이 ▲

직업지원팀에서는 아침고요수목원에 방문하여 취업자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목원을 탐방하면서 다양한 식물들을 관람과 앙토피어리만들기, 천연배쓰방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 제77차 취업자간담회 송년회

직업지원팀에서는 만리장성에서 취업자간담회 송년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송년회를 시작하기 앞서 직업지원팀의 전 직원이 나와서 각 맡은 사업과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였고 취업자분들도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에 사업의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고 취업자분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장애인지원사업 시각장애인 커피전문점 인도네시아 '카페모아 와따구나점' 오픈



문의전화 국제장애인지원센터 02-880-0870~3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인도네시아 시각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2019년 12월 13일(금)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섬에 위치한 반둥 지역의 시각장애인재활센터(BRSPDSN Wyataguna)에서 시각장애인 커피전문점 '카페모아 와따구나점' 개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실로암은 2009년 세계 최초 장애인들이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커피전문점 카페모아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 내 성공사례를 모델링하여 실로암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2018년에 몽골 최초 시각장애인 커피 전문점인 '카페모아 울란바토르점'과 '카페모아 칭겔테점'을 개소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카페모아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카페모아 와따구나점'을 10번째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모아 와따구나점'의 개소는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장애라는 한계를 넘어서 시각장애인의 자립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최동익 상임이사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사회부 사회복지 아이디트 수프리아디 프리아트나(Idit Supriadi Priatna) 국장, 재정부 사회 예산과 헤루 프라셋요(Heru Prasetyo) 국장, 시각장애인재활센터 대표 수다르소노(Mr. Sudarsono)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습니다.

그중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사회부 사회복지 아이디트 수프리아디 프리아트나(Idit Supriadi Priatna) 국장은 “카페모아 와따구나점을 모델로 하여,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장애인 바리스타의 직업이 널리 퍼져나가길 원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찾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이날 '카페모아 와따구나점'에 취업을 하게 된 파티마(Nur Fatimah, 23세)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는 “사회에 나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을 할 기회를 주신 실로암을 비롯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라며 “다양한 음료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입을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민관협력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3년간 본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바리스타 직업훈련실 구축 ▲기자재 지원 ▲직업훈련 ▲카페구축 등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13명의 인도네시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각각 바리스타 1기와 2기로 훈련교육을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생은 커피에 관한 이론교육에서부터 커피머신 활용법, 커피추출 및 제조법 등의 실기 교육, 워크샵 등에 훈련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바리스타 전문자격증 시험에 전원 합격한 쾌거를 거뒀습니다.



*실로암은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삶을 돌아보고 지원하기 위해 국제장애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직업재활, 교육, 이동권, 정보접근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14개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희망을 골인하다 시각장애인 축구



문의전화 문화체육지원센터 02-880-0830~6

거친 몸싸움과 강한 슈팅을 연신 날리면서
선제골을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선수들이 있다.
화려한 드리블을 지켜보면 연신 감탄사가 입 밖으로 흘러나온다.
희망을 골인하는 시각장애인 축구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시각장애인축구는 사이드라인을 따라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풋살과 비슷한 경기장과 룰 그리고 기술로 진행된다. 시각장애인 축구는 B1(전맹부)과 B2 B3(약시부)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공에는 특별히 고안된 방울이 삽입되어 있어서 전맹부에서 사용한다. 축구나 풋살과 비슷하게 규칙이 적용되나 특이한 점은 파울을 누적시켜서 적용하는 룰이 있어 농구의 팀파울과 비슷하다. 시각장애인축구는 다른 시각장애인 경기와 마찬가지로 감각이 중요하며 기타 운동신경을 비롯하여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1. 경기시간 및 경기장 규모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각 20분 중간에 10분간 휴식하며 하프타임이 적용된다. 국제경기에 있어서 경기장의 규모는 길이가 40M 폭은 20M 이하여야 하며 골대의 규격은 B1: 가로 3.66M 세로 2.14M, B2/B3: 가로 3M 세로 2M 이하여야 한다.

2. 선수의 수
한 팀의 선수는 풋살과 같이 4명의 필드 플레이어와 1명의 골키퍼로 총 5명으로 구성되며 후보 선수는 각각 이에 배수이다. 단, 골키퍼는 저시력인이나 비장애인이 한다.



3. 장비
전맹부 경기의 볼은 볼내에 방울이 들어있는 특수 고안된 공을 사용하며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선수는 눈을 가리는 아이패치와 안대를 착용하고 경기해야한다. 단 약시부 경기의 볼은 일반 풋살 공인 4호 볼을 사용하며 아이패치와 안대를 착용하지 않는다.

4. 가이드의 역할 (전맹부만 해당)
시각장애인 축구의 또다른 특징은 3명의 가이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팀의 총책임자인 매니저는 경기장을 3등분해서 가운데 부분에서만 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가이드는 상대방의 골대 뒤에서 자기편의 공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장을 3등분 했을때 공격진영에서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또한 골키퍼는 경기장을 3등분했을때 수비지역에서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5. 파울
농구경기과 같이 개인파울과 팀파울이 있다. 개인파울이 5개이면 퇴장당하며 팀파울은 6개부터 더블페널티킥(8M)을 허용한다. 페널티킥은 경우에 따라서 6M 페널티킥과 8M 페널티킥으로 나뉜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관에도 풋살선수 경력 이 있는 담당자가 직접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체력 및 기술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팀과의 교류전을 통해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표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도 참가하여 두 번의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하였는데, 이 기세로 2020년도 우승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저시력 축구팀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물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실로암 저시력 축구팀에 대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문화체육지원센터 생활체육교실에서는 수영, 볼링, 필라테스, 텐덤바이크, 클라이밍 등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각장애인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희망을 내리는 카페모아

세계 최초
장애인들이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커피전문점 카페모아

카페모아는 안마업에 한정된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 2009년에 개소하여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천본점을 비롯하여 관악구청점, 실로암안과병원점, 서울여성플라자점, 마포중앙도서관점 등 총 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의 카페모아 지점에서는 다양한 카페음료와 신메뉴를 출시해 하루 평균 1,000여명의 방문객의 발걸음을 사로잡으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몽골, 인도네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KOICA 지원을 받아 바리스타 일자리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카페모아가 궁금하다

Q. 카페모아는 어떤 곳인가요?

저시력 시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바리스타들은 모두 잔존시력을 가지고 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으로, 각기 다른 시각장애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Q. 각기 다른 시각장애는 무엇인가요?

시각장애는 시각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불편을 겪는 기능장애입니다. 그중 잔존시력이 있는 저시력인의 경우 20포인트 이상의 큰 글씨를 보거나 혹은 백내장과 같이 전체가 흐리게 보이는 경우 또는 주변시야가 보이지 않고 터널처럼 중심시야만 협소하게 보이는 등 개별적으로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비장애인분들도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카페모아의 비장애인은 계산이나 손님응대, 바리스타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고용된 매니저와 보조인이며, 이들을 제외한 모두가 시각장애인 바리스타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바리스타는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카페모아를 이용하는데 에티켓이 있을까요?

저희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들은 눈의 불편함으로 계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손님이 오셔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바로 앞에서 부르셔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료가 제조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정성을 다해 음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페모아 바리스타는 전문 직업훈련을 통해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하고 카페모아의 청결함과 음료 퀄리티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Vin chaud

겨울건강, 천연감기약 뱅쇼

봉천역 4번 출구 앞 인사들이 찾아가는 핫플레이스 '카페모아'에서도 음료를 즐길 수 있으니 서둘러 카페모아로 카페투어를 떠나 보는 건 어떨까?

추운겨울,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에 보약보다 따끈한 차 한 잔이 최고이다. 겨울에 마시면 좋은 차, 천연감기약 뱅쇼를 카페모아에서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프랑스로 뱅은 와인을 뜻하고 쇼는 따뜻한함을 말한다. 즉, 따뜻한 와인이라는 뱅쇼 와인에 과일과 다양한 재료를 넣고 끓이는 뱅쇼는 영국에서는 몰드와인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음료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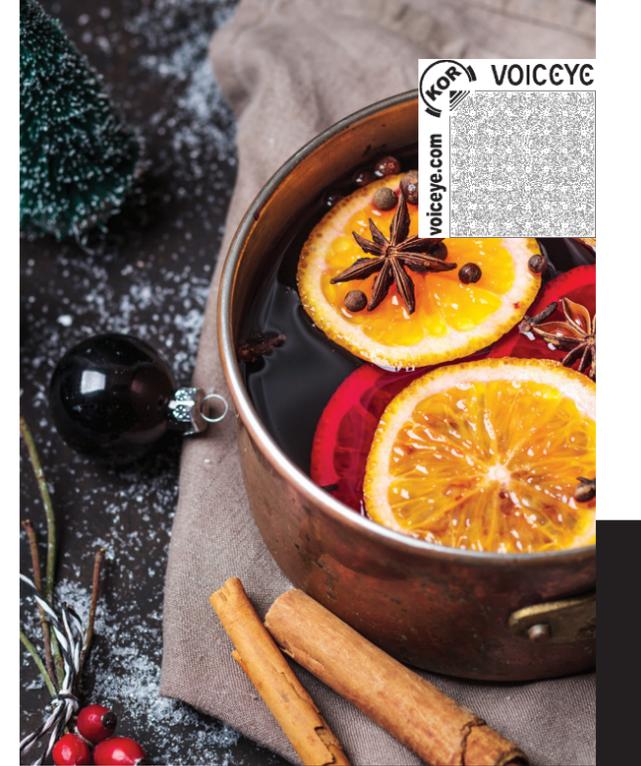


카페모아 바리스타의 Secret Recipe : 뱅쇼

재료 레드와인 750ml, 레몬/오렌지/사과, 시나몬스틱 2개, 정향 7개, 팔각 2개, 설탕 3숟가락

만드는 법

1. 준비한 과일은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깨끗이 세척한다.
2. 사과와 레몬은 씨를 제거한 다음 적당한 두께로 오렌지와 함께 슬라이스로 자른다.
3. 냄비에 준비한 향신료(시나몬스틱, 정향, 팔각)와 과일, 레드와인을 붓는다.
4. 냄비를 불에 올리고 중간에서 끓이며, 서서히 불을 줄이고 설탕을 넣어 고루 섞어준 다음 약불에서 은근하게 20~30여분 끓인다. (설탕은 기호에 따라 양을 조절하면 안성맞춤)
5. 불을 끄고 재료에서 맛과 향이 우러나오게 1시간 정도 상온에 보관 후 음료만 병에 담아 냉장보관한다.



본점 (봉천점)

주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1층
문의 02-880-0888

관악구청점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1층
문의 02-877-3442

실로암안과병원점

주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01(등촌동), 1층
문의 02-2061-0883

서울여성플라자점

주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1층
문의 02-812-1888

마포중앙도서관점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128(성산동), 2층
문의 02-332-4388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흰지팡이의 날' 맞아 시각장애인 당사자 이동 및 접근권 향상을 위한 거리행진 개최

'흰지팡이의 날'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는 날까지 도심 행진은 계속됩니다.

문의전화 자립생활센터 02-880-0810~6

또한 참가자들은 행진 도중 멈춰 자유발언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언대에 선 한 참가자는 “지하철 역이나 버스정류장을 찾아가 할 때 지나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라는 말이 시각장애인의 기본 매뉴얼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내가 스스로 방향을 파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자립생활의 기초다. 시각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리행진에는 국내 첫 장애인 아나운서이자 前 KBS아나운서인 이창훈 아나운서(좋은이웃 컴퍼니), 사회와 한국을 대표하는 브라질 타악기 연주그룹 라퍼커션, 시각장애인 아티스트 그룹 '더 블라인드' 소속 정명수씨가 함께 참여해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었으며,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자들의 공연도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심리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수장애인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 소비자 권리, 동등한 기회제공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시각장애인의 권익 향상, 동료상담 모델제시,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 등 장애당사자를 위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볼라드(bollard)는 자동차가 인도(人道)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이다. 현재 인도 위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볼라드가 교통약자의 보행 방해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9년 10월 18일(금) 관악구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시각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 향상을 위한 거리행진을 개최했습니다.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거리행진으로 불법볼라드(볼라드: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전면교체, 건물목 음향신호기 전면 설치와 교통약자 조례 제정(지하철 500m 내 장애인보행안전구역 제정)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거리행진은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로 시각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총 180여 명이 참여해 결의문 낭독 후 시각장애인 이동 및 접근권 보장을 외치며 봉천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왕복 약 2Km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날 한 시각장애인 참가자는 “버스정류장에 버스 여러 대가 올 경우에 큰 불편을 느낀다.”라며 “특히 음향신호기가 없는 버스정류장이 많아 어떤 버스가 오는지 몰라 곤란함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시각장애인 참가자는 “불법 볼라드가 설치된 사유지를 단속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법적으로 사유지이지만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 불법 볼라드가 설치된 경우가 많다. 때때로 불법 볼라드 때문에 상해를 입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01.
January

시각장애인가족과 떠나는
화천 산천어 축제 탐방



02.
February

2019년 효명장학금 수여
(상하반기 시각장애대학생 55명,
장학금 1억 4천여만원 지원)



03.
March

국가지원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강사 파견사업' 수행기관 선정



04.
April

제6회 시각장애인가족한마음축제



05.
May

시각중복장애 성인 평생교육사업
'너나들이교실'



06.
June

시각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주민조직화사업 '함께 사는 동네 만들기'



07.
July

시각장애인 가족들의
아름다운 추억 '여름 가족캠프'



08.
August

국악전공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제6회 국악캠프



09.
September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복지선교 50주년 기념 음악회



10.
October

1. 관현맹인전통예술단 미주 순회공연 (카네기홀, Bergen County Academies, The Korea Society 등)
2. 장애인인식개선 및 지역공동체를 위한 축제 '2019 희망모아 나눔모아' & 시각장애인 이동 및 접근권 향상을 위한 거리행진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정보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실로암 헬스모아' 출시
4. 제6회 촉각명화 기획전, '강렬한 색채와 내면의 통찰: 표현주의'



11.
November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
20주년 기념 실로암 기초재활
홈커밍데이 개최



12.
December

시각장애인 커피전문점 인도네시아
'카페모아 와따구나점' 오픈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